

관련 기록을 통해 본 <유연전(柳淵傳)>의 입전의도와 그 수용태도*

송 하 준**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당대인의 <유연전> 수용태도 |
| 2. <유연전>의 입전자료 | 5. 맺음말 |
| 3. <유연전>의 입전의도와 그 구현양상 | |

1. 머리말

<유연전(柳淵傳)>은 유연(柳淵)의 옥사(獄事)를 기술한 전(傳)이다.¹⁾ 이항

* 이 논문은 2001년도 BK21 고려대학교 한국학 교육·연구단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1) 1607년 12월 저어저서 1608년 봄 성주(星州)에서 초간본이 간행되었으며, 1650년 중간되었다. 필자가 확인한 고려대 소장 중간본과 『문집소재전자료집』에 실린 <유연전>은 전혀 차이가 없으며(이항복, <유연전>, 김균태 편, 『문집소재전자료집』 1, 태학사, 1997. pp.498~520), 『백사집(白沙集)』에 실린 <유연전>과는 세 글자가 다를 뿐이다(『白沙集 附 北遷日錄』, 간행처 미상, 1977. pp.238~243). 따라서 본 고에서는 영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고전소설이본목록』에는 성균관대 도서관에 국문필사본 <유연전>이 소장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이 작품은 유연옥사를 다룬 <유연전>과는 전혀 별개의 작품이

복(李恒福 : 1556~1618)은 끝 부분에서 이원익(李元翼 : 1547~1634)의 권유에 따라 이 작품을 짓게 되었다고 경위를 밝히고 있다.

이수봉은 이 작품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였다.²⁾ 그는 <유연전>을 『명종실록』·『선조실록』의 기록 및 『송계만록(松溪漫錄)』·『문소만록(聞韶漫錄)』·『부계기문(浣溪記聞)』 등의 보조자료와 대비하여 그 확장·부연양상을 살폈다. 그 결과 <유연전>은 유연과 이지(李穰) 사이의 갈등구조가 일차적이며, 유연의 처 이씨와 이지 사이의 갈등이 이차 갈등을 이루는 복합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 작품이 사실(史實)을 원용하되 풍부한 문장력을 바탕으로 흥미있게 조직한 창작적인 구조가 엿보인다는 점을 들어 창작소설, 특히 공안소설(公案小說)에 귀속시켰다.³⁾

이현홍은 <유연전>의 소설성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왕조실록의 유연옥사 기록과 이 작품을 비교·검토하였다. 그는 이 작품이 고소설에서 흔히 전형적인 인물을 설정하는 데서 벗어나 절제된 인물들을 설정하여 그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작자의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 이를 위해 허구적 시간 배열 기법, 장면중심의 극적제시와 요약적 제시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소설성이 부각되었다고 하였다.⁴⁾

박희병은 <유연전>이 일반 전과 달리 입전인물과 주변인물들간의 상호관

다. 전주 복촌에 사는 청연선성이 만득자 유연을 얻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애정소설류로 여겨진다(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p.477).

2) 이에 앞서 김태준은 <유연전>을 선(宣)·인(仁) 양대 간에 발흥한 소설문학 가운데 개인전기의 항목에서 다루었는데, 근대소설 일반을 기술할 때는 공안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p.79, p.191). 이가원은 입관이후의 문학을 논하면서 이 작품을 전기계(傳記系) 소설로 분류하였다(이가원, 『한국한문학사』(재판), 민중서관, 1991. pp.250~251. 초판은 1960). 김현룡은 『명종실록』·『선조실록』·『유연전』·『부계기문』·『효빈잡기(效靈雜記)』에서 유연옥사에 대한 기록의 변이과정을 살피고, 이 사건이 '진안인 식별설화(眞贋人 識別說話)'로 발전하여 <용고집전>의 근원설화가 되었다고 하였다(김현룡, 『용고집전의 근원설화 연구』, 『국어국문학』 62·63합집, 국어국문학회, 1973).

3) 이수봉, 「유연전연구」, 『호서문화연구』 3,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83.

4) 이현홍, 「實事의 소설화—유연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한국고소설의 조명』, 아세아문화사, 1990.

계를 자세하게 탐구하여 그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빚어지는 갈등을 구체화하였고, 세부나 장면을 구체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서사적으로 대단히 확장·부연된, 심한 소설적 경사를 보이는 작품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항복은 애초 전을 짓는다는 의식 하에 이 작품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소설적 경사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작자의 장르인식과 작품의 객관적인 장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⁵⁾

노꽃분이는 이 작품이 두 가지 의문, 즉 ‘채응규는 진짜 유유인가?’와 ‘유연이 유유를 죽였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고 하였다. 이 때 독자들은 스스로 문제와 진실을 발견해가면서 당시의 재판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되는데, 유연이 신원되는 결말에 이르면 자신들의 처부를 반성하면서 그것을 고쳐나간 당대 지식인들의 낙관적 세계관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연전>은 독특한 구성으로 말미암아 소설이 되었으며, 단순한 송사소설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다룬 소설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⁶⁾

<유연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이 작품이 소설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되거나, 그 소설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칠게 말한다면, 이 작품이 다른 전들에 비해 사건 전개가 매우 흥미롭고, 문체 면에서도 많이 확장·부연되어 풍부하게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소설적인 요소를 다분히 갖추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앞선 논의들처럼 <유연전>의 소설적 특성을 확인하는 데 있지 않다. 이 작품은 전으로 지어졌으며, 전은 여타 산문장르에 비해 작자의 목적의식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작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작자의 입전 의도를 작품의 문면과 정확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항복이 어떤 이유로 이 작품을 짓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어 그것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었으며, 독자들은 어떤 태도로 이를 수용했는

- 5)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pp.132~133. 조동일이 ‘<유연전>은 본의 아니게 지은, 소재 선행의 소설’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제3판), 지식산업사, 1994. p.90.
 6) 노꽃분이, 『유연전의 구성적 특징과 서술의식』, 한국고전연구회, 『한국고전연구』 창간호, 계명문화사, 1995.

지 살피기로 한다.

이를 위해 <유연전>과 관련된 여러 기록을 검토할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생송원록(李生訟冤錄)>과의⁷⁾ 대비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생송원록>은 유연옥사에 대해서 <유연전>과 정반대의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생송원록>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유연전>의 문면에 나타나지 않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를 통해 이항복의 입건의도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유연전>의 입전자료

전(傳)은 사실을 지향하는 문학으로 증험(證驗)을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전을 짓는 일을 경계해 왔다. 먼 과거의 일을 서술할 때는 허위가 깊게 되므로 의심스러운 것은 생략해야 하며, 가까운 시대의 일을 서술하려면 왜곡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⁸⁾ 여기에 더하여 정확한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재(文才)가 뒷받침되어야만 의도한 대로 사실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난리 후에 이원익이 금호문 밖에 집을 지었는데, 이씨의 집과 문이 맞닿아 있어, 그 일의 시말을 모두 듣고 그 억울함을 측은하게 여겼다. 다침 주

7) 權得己, <李生訟冤錄>, 『晚悔集』 卷四, 『한국문집총간』 76, 민족문화추진회, 1991. pp.62~72.

8) 의심스러운 것을 생략하는 것은 신빙성이 있는 역사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속에서는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나머지 사실을 돌아보는 일도 없이 간접으로 들은 일들을 훌륭하게 생각하여 쓰거나 먼 시대의 일을 기록하는데 그 痕迹을 상세히 기록하려고 든다.…(중략)…한편 동시대의 사실을 사서에 담을 때, 시대가 같기 때문에 흔히 사실이 어그러진다(蓋文疑則闕, 貴信史也. 然俗皆愛奇, 莫顧實理, 傳聞而欲偉, 其事錄遠而欲詳其跡, …(중략)…至於記編同時, 時同多詭 유럽 저, 최신호 역주, 『文心雕龍』 史傳 第十六, 현암사, 1975. p.69).

상께서 병으로 자리에 누우시니, 나와 매일 함께 입궐하고 생활을 같이 하였다. 내게 (그 일을) 이야기하고, 또 “사리(事理)를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 일이 전해지기를 바라오.” 하였다. 물러나와 그 가승을 모두 거두어 보내고, 사람을 시켜 짓기를 재촉하며, “이 일이 이루어지면 지극한 억울함이 씻길 수 있고, 관훈(官訓)이 서게 될 터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도모하지 않으시오?” 하였다.9)

이원익이 유연의 옥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항복에게 입전하도록 권유한 경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조는 1607년 10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세자에게 전위(傳位)·섭정에 대한 비방기를 내릴 정도로 병세가 위중하였으므로 대신들은 궐내에서 대기하였다.10) 이 때 처음으로 전을 짓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연전>이 지어지기까지는 약 1개월 정도가 걸린 셈이다. 그런데 이항복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평소 교분이 두터웠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589년 정여립(鄭汝立 : ? ~1589)을 국문할 때 문사랑(問事郎)으로서 뛰어난 면모를 보여 선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11) 이후 옥사가 발생하면 그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이 많았다.12) 재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능력을 인정받던 이항복인 데다 이원익과의 관계도 친밀했기 때문에 <유연전>을 짓기에 그만한 책임자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항복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유연전>을 지었을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다. 이 때 『명종실록』은 이미 간행되었으므로 대상자료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며, 선조가 1608년 2월에 승하하였으므로 『선조실록』은 아직 편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생송원록>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공초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항복도 관련 기

9) 亂後, 李相元翼治第于金虎門外, 與李氏連門, 停具聞事始終, 而傷其寃. 會上寢疾, 與余日日同入闕起居, 爲余言之, 且曰, “願托知言者, 以圖不朽.” 退會盡取其家乘, 使來速讀曰, “此事若成, 至冤可雪, 官訓可立, 子盍圖之?” 이항복, <유연전>, 앞의 책, pp.518~519.

10) 『선조실록』, 40년 10월 戊辰條~40년 11월 辛丑條.

11) 鄭汝立之獄, 上親臨鞫囚, 李恒福以問事郎明敏稱旨, 上每召恒福使傳說, 同僚拱手不敢望…(중략)…上召恒福, 使道問事郎時事, 而極稱高才. 『增補文獻備考』 권133 刑考七, 『증보문헌비고』 중, 동국문화사, 1957. p.537.

12) 이항복, <婢殺主推案議>, <官吏杖殺人對檢議>, <宗室德恩舍殺人推案議>, 『白沙集』 別集 卷三, 『한국문집총간』 62, 민족문화추진회, 1991. pp.386~387.

록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연전>에 대관(臺官) 정엄(鄭淹)이 유연의 옥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던 사실이¹³⁾ 나타나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연의 처 이씨가 언문으로 유연이 억울한 죄로 죽게 된 정상을 기록하였는데, 이원의·이항복 두 재상이 그것을 가지고 전을 지었다. 이씨는 일개 부인일 따름이다. 유연의 억울했던 마음을 모두 아는 데는 그 누구도 더할 수 없겠지만, 당시 국문하던 사정과 공초하던 말을 증거한 것은 상세하지 못하다. 들었다는 것은 모두 종놈들이 함부로 전한 말이나 길에서 주위들은 잘못된 것에서 나왔으며, 수십 년 후에 지난 일을 기록한 말이니 혹 그 실상을 언저 못할 수도 있다. 그 주된 뜻은 지아비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 있었지만, 당시의 사정에는 잘못된 것이 없을 수 없어서 남을 죄에 빠뜨리게 되었다.¹⁴⁾

이항복이 전을 지을 때 삼성추국시(三省推鞠時)의 공식적인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은 자명하지만, 이 외에도 유연의 처 이씨가 기록한 <가승(家乘)>이 세세한 부분을 증언하는 데 참고자료로 큰 몫을 차지했다는 것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 이씨 <가승>이 얼마나 사실에 근접해 있으며, 입전 자료가 될 만큼 믿을 만한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이지(李穉 : 1523~1580)의 아들인 이언용(李彦容 : 1568~1614)은 그 사실성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씨가 직접 국문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전문(傳聞)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왜곡된 것이 상당히 많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했다는 것이다.

이언용은 <유연전>의 자료에 결함이 많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항복이 전적으로 이씨 <가승>에 의지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항복은 여타 공식적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입전 자료가 객관적이어야 함을 몰랐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연전>을 지으

13) 『선조실록』 4년 10월 丙子條.

14) 淵妻李氏，以謠字抄錄淵枉死之狀，完平、鰲城兩丞相，因之以作傳。夫李氏一婦人耳，其於淵冤枉之心，曲知之者，固莫能先也。至於當時鞫獄之情，證佐供招之辭，則有未能詳者。其所聞，蓋出於奴僕信口之傳，道聽塗說之訛，數十年後追抄之語，容有未得其真。其主意，蓋在於明夫之冤，而於當時事情，不免有失，而涉於誣枉。 권득기, <이생송원록>, 앞의 책, p.69.

면서 이씨 <가승>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그 잘못까지도 그대로 답습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생송원록>을 통해서 이항복이 <유연전>을 지으면서 살펴보았을 만한 자료 가운데 택하지 않은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유연전>에 나오지 않는 여러 사람, 즉 유연의 표형(表兄) 이자침(李子瞻), 형수 백씨의 비부(婢夫) 허의손(許義孫), 노비 금석(金碩)·몽합(夢合)·억종(億種) 등의 공초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물론 이 내용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들을 신문(訊問)하였으며, 이항복도 그 내용을 적었으리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작품에는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것은 <이생송원록>에 보이는 공초가 모두 유연의 범행을 증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결국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진에 연루된 많은 증인들의 공초가 모두 <유연전>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으며, 사실이 아니거나 이항복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유연전>의 입전의도와 그 구현양상

일반적으로 전은 대상이 되는 인물의 행적을 “포폄의식과 연민의 염(念)으로써 서술하여 역사에 길이 전하고자 하는”¹⁵⁾ 의도에서 쓰여진다. 그렇다면 <유연전>은 유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 작품의 입전의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여기서는 이항복이 이 작품을 지으면서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는가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였는지 살피기로 한다.

1) <유연전>의 입전의도

이원익이 금호문 밖에 거처를 마련한 것은 1599년이었는데,¹⁶⁾ 유연의 일을

15) 박희병, 앞의 책, p.39.

16) 權念 撰, <行狀>, 이원익, 『梧里集』 續集 附錄 卷二, 『한국문집총간』 56, 민족문

이항복에게 전한 것은 1607년 말이었다. 이원익이 유연의 처 이씨와 이웃하게 된 시점을 기록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유연옥사의 내막을 전해 듣고 그의 억울한 죽음에 깊은 연민의 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시 유연을 살인범으로 오판했던 판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으리라는 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원익이 이항복에게 전을 지으라고 권유했던 까닭은 유연의 억울함을 씻어주고 관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경계의 자료로 삼으려는 데 있었다고 하겠다.

재판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는 것은 언제나 있는 일이고, 그렇기에 어느 시대나 관원들의 신중한 법 집행이 강조된다. 이원익이 입전을 권유했던 선조 말기에도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음은 물론이고, 의금부에서는 억울한 옥사에 대해 재심리하라는 선조(宣祖)의 전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하였다.¹⁷⁾ 더욱이 형조의 서리가 공초받은 서류를 빼내 파기하거나¹⁸⁾ 죄인을 사사로이 풀어주는 사건까지 발생하는¹⁹⁾ 등 관의 기강해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유연전>의 입전의도는 앞에 든 두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그런데 이원익이 비록 이씨의 호소에 깊이 공감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기록에 남기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유연이 신원된 1580년으로부터 27년이 지난 시점에 굳이 입전하려고 했다는 것은 단순히 유연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했거나 해이해진 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원익이 당시 어떤 사건에 관심을 가졌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연전>을 짓도록 권유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선조실록』을 통해 보면 1607년에는 강상(綱常)의 죄(罪)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매우 빈발했음을 알 수 있다.²⁰⁾ 이원익은 이 사건들을 모두 알고 있었

화추진회, 1990. p.538.

17) 『선조실록』 40년 5월 甲子條.

18) 『선조실록』 40년 4월 癸巳條.

19) 『선조실록』 40년 4월 乙巳條.

20) 형제 사이에 재산 다툼을 벌이다가 칼부림을 한 경우나(『선조실록』 40년 1월 辛丑條),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한 사건(선조실록』 40년 1월 丁丑條), 아내가 남

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가운데 윤정·윤호 형제간의 사건만 기록하고 있다.²¹⁾ 그리고 형옥(刑獄)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은 임해군(臨海君)의 패려한 행동이 문제되었던 유희서(柳熙緒) 사건(1606년)이 있다.²²⁾ 세상에서는 임해군이 유희서의 애첩을 뺏고 도적을 시켜 살해했다고 하는데, 죄인을 심하게 다스렸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맡은 포도대장 변양걸(邊良傑)이 오히려 유배되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던 이덕형마저 선조의 진노를 사서 체직되는 것으로 결말지어진 것이 유희서 사건의 개요이다. 이 사건의 경우 고위 판리가 피살되었는데도 선조가 앞장서서 죄인을 비호했으므로 이덕형, 이항복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²³⁾ 이 밖에도 궁가(宮家)에서 백성을 수탈하고 해친 사건은 비일비재했고 여러 차례 그 폐해가 지적되었다.²⁴⁾ 그러나 선조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미열한 왕자를 각박하게 책한다”든가, “아들의 일로 아비를 번거롭게 한다”고²⁵⁾ 하여 오히려 언로(言路)를 막고 나섰다. 따라서 이원익이 <유연전>을 짓도록 권유한 데는 앞서 살핀 두 가지 이유와 함께 궁가의 폐해에 대한 나름의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항복이 <유연전>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논란 부분을 통해 살피기로 한다.

① 나는 유연의 억울함을 슬피 여겼고, 백씨에게 먼저 확인하게 하지 않고 경솔하게 관에 발고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했다. ② 이지가 끝내 바른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몹시 한스럽게 여겼는데, 목매달아 죽이는 형벌을 피해간 것은 요행이었다. 그 때 범망이 허술하여 심통만은 빠져나갔다. ③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일에는 불행 중에도 다행한 것이 있다. 윤선각·이원익 두

편을 살해한 사건(『선조실록』 40년 윤6월 乙丑條) 등이 그것이다.

21) 이원익, 『李相國日記』 三, 심노승 편, 『靜嘉堂本 大東稗林』 26, 국학자료원, 1992, p.355.

22) 이원익, 위의 책, pp.340~341.

23) 趙見素 저, 조남권 역, 『국역 紀年通攷』 坤, 영신문화사, 1992, pp.853~854.

24) 대표적인 사례로는 순화군(順和君)이 민가의 재산을 뺏고 살인을 일삼았다든지(『선조실록』 40년 3월 辛巳條), 순녕군(順寧君) 이경검(李景儉)이 오촌(五寸)의 재산을 빼앗으려다가 파직된 사건(『선조실록』 40년 윤6월 丁亥條) 등이 있다. 사관은 순화군의 일을 ‘임해군과 정원군(定遠君)의 행패보다는 덜했다’고 적고 있어 이들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25) 『선조실록』 40년 6월 丁酉條.

사람이 선후가 되고 죄수가 되어 유연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면, 어찌 당시에 (억울함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후세에 전할 수 있었겠는가? ④ 세상에서는 유유가 도망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한다. 아들이 되어 아버지에게서 도망한다면 사람의 도리가 없어진다. 도망한다 한들 어디를 갈 것인가? 세상 어디에 아버지 없는 나라가 있겠는가?...(중략)...설령 유유가 아주 부득이하여 부모를 거스르고 멀리 갔다 해도, 진공자(晉文公-필자)는 진(秦)나라에 있었어도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알았으니, 어찌 지나치게 자취를 감추어 동생이 억울하게 죽게 할 수 있는가? ⑤ 장인(권윤-필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중략)...“화를 당한 후에 그 처는 봉두난발에 때묻은 얼굴로 정성을 다해 기도했는데, 머리가 희어질 때까지도 하루같이 하니,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참화에 대처할 만하다’고 하더라.” 하셨다.²⁶⁾

여기에서 작자는 입전하게 된 동기를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유연의 억울함을 애석하게 여겼다는 것, 둘째, 이지와 심룡이 죄를 짓고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지 않은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 셋째, 윤선각과 이원익에 의해 유연의 억울함이 다소 풀리게 된 경위를 알리는 것, 넷째, 유유가 도망한 것은 인륜에 어긋난다는 것, 다섯째, 이씨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정성을 다한 것을 포장하려는 것이다.

인용문에서 이항복은 판관의 그릇된 판결 자체를 드러내어 문제삼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묵인한다거나, 그 심각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유연이 억울했다’는 말은 ‘판관이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자는 위관(委官) 심통원(沈通遠)이 유연을 살인범으로 단정하고 고문을 통해 자백을 얻어내는 장면을 제시하여 그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유연전>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관의 공정하고 신중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마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²⁷⁾ 여기에 윤선각·이원익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강조한 것은 판

26) 余竊悲淵之冤，惜不令白氏先驗而徑造官，重恨視終不服正術，而得違旬人之謫也。幸矣。當時網疎而隆獨漏也。雖然，事有不幸而幸者，不有尹李諸公，爲之先後而左右之，使淵有附驥之幸，則又惡能暴於當時，而施於後世哉？世或稱游不良逃也，子而逃父，人理滅矣。逃將焉往？世安有無父之國哉？...(중략)...設令柳游大不得已而違親遠逝，管公子在秦，天下無不知，何乃過爲泯迹隱端，致弟枉死也？權聘君嘗言，...(중략)...“罹禍之後，妻能囚首喪面，竭情祈告，至白首如一日，宗黨謂爲能處慘禍”云。이항복, <유연전>, 앞의 책, pp.519~520.

27) 위관 심통원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도 설명할 수 있

판의 잘못과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관원들의 노력을 대비하여 그릇된 판결을 바로잡고 억울한 희생자를 신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또한 신중한 사건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유의 행위에 관한 의론(議論)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건의 원인이 그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유의 처신에 대해 앞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연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행적부에서는 급박하게 전개되는 사건의 흐름에 밀려, 옥사의 국외자(局外者)였던 유유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으므로 논찬에서 그 시비를 가리고 있다. 이는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유유를 석방하려 하자 강상(綱常)의 죄인(罪人)이므로 그냥 놓아줄 수 없다고 하여 유배시킨 사실과도²⁸⁾ 맥이 닿는다.

논찬에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포럼은 여타의 전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이 원억이 입전을 권유했을 때의 의도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서 두 번째로 거론한 사항이 주목된다. 작자가 이지에 대해 매우 가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는 국문과정에서 장독으로 죽었다. 그런데도 형이 집행되기 전에 죽어 극형(極刑)²⁹⁾ 모면한 것이 오히려 요행이라고 비꼬고 있어, 일견 지나치다 싶을 정도이다.

다. 삼성추국은 강상지범(綱常之犯)을 취급하는데,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형조에서 이미 죄인의 자백을 받은 상태이므로 국청(鞠廳)은 다만 죄인의 사죄(死罪)를 결정한 판결문인 결안(結案)만 받으며, 이것이 끝나면 자리를 파한다(정석종, 『推案及鞫案 해제』, 한국문헌연구소 편, 『推案及鞫案』, 아세아문화사, 1984. p.5). 또 사건 관계인(事干)의 진술이 일치한 후에 형신(刑訊)하는 것이므로 다른 증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유연을 지목한 상황에서의 고문은 당시의 형벌제도 하에서는 옥사의 체례(體例)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보다 신중하게 사건의 정황과 증거를 살피지 않고, 피의자의 자기변호 기회를 주지 않아서 억울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28) 三省並鞠, 竟得其實, 以病將見釋, 上以爲父死而不奔其喪, 弟刑而不雪其冤, 雖曰病風, 烏得無罪? 遂配于龍岡縣. 권응인, 『송계만록』, 『국역 대동야승』 14, 민족문화추진회, 1973. pp.281~282.

29) 경(磔)은 옛 사형제도 가운데 하나로 공족(公族)에게 죄가 있을 경우 전인(甸人)이 목을 매 죽이는 형벌이다(公族其有死罪, 則磔于甸人. 『禮記』 <文王世子>).

경군(경준-필자)이 말하기를 달성령이 을사년에 이름이 나서 훈공의 등급에까지 올랐다는데, 또한 알 수 없다.³⁰⁾

여기에서의 을사년은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났던 1545년이다. 이지가 그 일로 이름이 났고 공신이 되었다면 사화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득기는 이언용의 부탁에 따라 이지가 유연옥사의 주범으로 몰린 것은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 즉 <이생송원록>을 써준 인물이다. 따라서 인용문의 끝 부분에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직접 논급하기 어려운 처지 때문이다. 따라서 경준(慶遠)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아 무방하다. 또 경준은 이언용과 인척관계이고³¹⁾ 권득기와는 지우(知友)이므로 그가 이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라고 해도 좋다. 실제로 이지는 을사사화 후에 원종일등공신(原從一等功臣)에 책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간원에서 그를 원종일등에 책록하는 것이 지나치게 높다고 간했지만, 명종은 과거의 은의(恩義)를 생각하여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³²⁾ 이 기록과 경준의 말을 종합하면, 이지가 을사사화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여 원종공신에 책록된 것은 분명하며, 사간원에서 문제삼은 것은 오품(五品)의 낮은 위계에 있던 그를 당상(堂上)으로 가자(加資)한 것이 지나치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명종은 그 후에도 특별히 병풍을 하사하고 시를 지어 보내게 했을 정도로 이지를 매우 총애했다.³³⁾ 그런데 이지가 교류했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세간의

30) 慶君說達城有名於乙巳。至參勳階云。是亦未可知也。 권득기, <與朴君省書>, 『晚悔集』 卷四, 앞의 책, p.73.

31) 달성령의 셋째 아들은 나와 같은 마을에 사는 친분이 있고, 두 사람은(경준과 이언용-필자)은 또한 인척이므로 나에게 부탁한 것이다(蓋達城三子, 於得己有鄉里之分, 其兩人又有姻契, 故見屬. 권득기, 위의 글, p.73).

32) 사간원이 박간·박승례의 원종공신에 대한 성명을 도로 거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원종 일등에 녹훈된 사람은 별로 공로가 없는데도 당상 이상의 중가(重加)를 어찌 가벼이 줄 수 있겠나이까?... (중략)...달성령 이지는 품질(品秩)이 아주 낮은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외람되게 등급을 초월해 자급을 올려줄 수 있나이까?... (중략)...달성령은 내가 어렸을 때 여러 차례 그 집에 우거(寓居)하였는데, 그 공을 갚을 길이 없었다. 이런 까닭에 아울러 윤택하지 않는다(諫院啓, 朴幹·朴榮禮原從功臣暹收成命事, 又啓, 原從一等之錄, 別無功勞, 堂上以上重加, 豈可輕授?... (중략)...達城令視, 品秩太卑之人, 超陞之濫, 豈至於此乎?... (중략)...達城令, 予少時屢寓其家, 無以酬功, 以是並不允. 『明宗實錄』 원년 2월 辛丑條).

33) 명종조에 은혜가 두터워 작명(爵命)을 더하시고, 그림 병풍과 시, 서를 내리시

평이 좋지 않았다. 앞서 시를 지어주었던 강극성(姜克誠 : 1526~1576)은 간사하고 방자하며 거리낌이 없다는 평이³⁴⁾ 자주 보이며, 명종 후반기의 대표적인 척신인 이량(李樑)과 함께 '육간(六奸)'으로 지목되었다. 이량은 명종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외숙으로 윤원형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등용되어 명종 13년부터 18년까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심통원은 명종비의 종조부(從祖父)로 이량을 자신들의 정치적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심씨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인데,³⁵⁾ 탐욕스럽고 비루하다고 하여 세간의 지탄을 받았다.³⁶⁾

이지는 명종의 권우(眷遇)를 입었지만, 성품이 음험하고 일을 잘 꾸몄던 데다 평이 좋지 않은 인물들과 교류했던 것이다. 평소의 성행이 이와 같았으므로 유연옥사를 일으킨 주도자로 그가 지목된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이항복으로서는 이지애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불만스러웠으며, 이를 매우 강경한 어조로 표출했다고 생각된다. 뒤에서 살펴겠지만 당대인들이 이지애 대해 한결같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항복은 유사한 사건을 많이 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철실 소생의 아들이 적실 소생의 누이가 아버지를 독살했다고 모함한 사건(1589년)이 있었으며,³⁷⁾ 이항복은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³⁸⁾ 그러나 성격이 유사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유연옥사를 전으로 남긴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이 점에서 이항복이 <유연전>을 짓게 된 것

니, 사간원 지제교 강극성이 지어 올렸다(明宗朝, 眷遇隆重, 又加爵命, 賜畫第屏幃並詩若序, 司諫院知製教姜克誠製進. 전주이씨익현군과종회 편, 『全州李氏翼峴君派譜』, 회상사, 1992. p.2).

34) 『명종실록』 9년 11월 壬戌條., 11년 8월 乙巳條., 15년 10월 壬戌條., 20년 1월 甲辰條.

35) 김우기, 「조선 명종대 군신관계의 추이와 성격」, 『국사관논총』, 80, 국사편찬위원회, 1998. pp.202~203.

36) 성균관 유생들이 심통원과 심뇌(沈鏞) 부자의 이름을 나란히 탁방(濁榜)에 올려 소인배라고 조롱하였을 정도였다. 청방(淸榜)에는 박순(朴淳) 등 4명이 올랐고, 탁방에는 심전(沈鎔), 심통원, 심뇌 등이 거명되었다. 『명종실록』 21년 2월 丁卯條.

37) 『증보문헌비고』 권133 刑考七, 앞의 책, pp.536~537.

38) 이항복, <尹德敬三省推鞠議>, 『白沙集』, 別集 卷三, 『한국문집총간』 62, 민족문화추진회, 1991. p.392.

은 당시 사회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앞서 살핀 이원익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작품에 나타나는 이지의 악행과 유연의 억울한 죽음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종실의 악행과 그로부터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종실이 관계된 사건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2) 입전의도의 구현양상

전에서 작자의 입전의도는 논찬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인물형상, 갈등구조를 통해 구체화된다. 여기서는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그 구현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1) 유연과 이씨의 형상화

제명대로라면 유연은 작품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유연과 그의 처 이씨의 모습은 매우 수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뒤에서 살필 악인형 인물인 이지의 형상이 강하게 그려지는 것에 반비례한다. 유연과 이씨는 사회적으로 그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이지의 악의적인 모함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유연이 국문당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간절히 호소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연은 죽기 전에 이씨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이씨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16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그마저도 윤선각의 계청에 따라 조정에서 유연옥사를 다시 조사하여 진짜 유유가 나타난 후의 일로 기술되고 있다. 이것은 이씨가 지아비의 신원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했다는 것을 말한다. 매일 어둑한 새벽에 일어나 지아비의 억울함을 셋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원하였으나[每日昧爽, 輒焚香祝天, 願雪夫冤],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기[雲冤無路] 때문이다. 가짜 유유의 거처를 알고 있다며 접근한 永守에게 사기를 당했던 것도³⁹⁾ 역시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던 이씨의 절박한 심정을 말해준다.

39) 이항복, <유연전>, 앞의 책, p.518.

유연과 이씨는 권력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마저 위협받으면서도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당대의 힘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반영한다. 작자는 이들의 모습을 강한 권력을 지닌 악한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법과 제도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로 형상화하여 이지의 악행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2) 백씨(白氏)의 형상화

유연의 형수인 백씨는 유연이 없으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집안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처럼 현실적 동기가 큰 데 비해 작품에 나타나는 그녀의 모습은 주변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편인 유유가 산 속에서 독서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도 백씨는 다른 근거 없이 '미쳐서 도망갔다'고⁴⁰⁾ 말한다. 여기서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채응규가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진짜 유유가 아니라고 증언했는데도 그 진위를 직접 확인하려 하지 않다가 정작 진짜 유유가 없어진 후에는 유연이 형을 살해했다고 감사에게 고발한다.⁴¹⁾ 유연옥사가 일어난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한 셈인데, 재산에 욕심이 나서 유연을 무고했다든지 이지와 공모하여 일을 벌였다는 등의 백씨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유연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건의 서술이 마무

40) 유유가 일찍이 산에 들어가 독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오지 않았다. 유예 원과 백씨가 '미쳐서 도망했다'고 하니, 말이 집 밖으로 퍼졌다. 이미 아버지와 처가 징험하니 동네 사람들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游營入山讀書，因忽不返，禮源與白氏言‘狂易而奔’，言出門庭，既父與妻爲徵，鄉人信之不疑。 이항복, <유연전>, 위의 책, pp.498).

41) 백씨가 상복을 입고 밤낮으로 울며 감사에게 호소하였다. "지아비에게 불량한 동생 유연이 있는데, 재화를 끝없이 탐내서 진짜를 가리켜 가짜라고 하고, 형을 포박하여 관가에 가두고는 화를 떠넘기려 하였습니다. 지아비는 본디 광증을 앓았습니다. 간혀 있다보니 병세가 더욱 나빠졌는데, 다행히도 태수께서 병을 치료하게 해주셨는데, 유연이 지키는 자에게 뇌물을 주고 죽여서 그 자취를 없앴습니다. 바라옵건대 유연의 죄를 다스려 칩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白氏累然服斬，日夜哭訴監司曰，“夫有不良弟淵，貪貨無厭，指眞爲僞，縛兄官囚，圖嫁淫禍。夫本病狂，被拘益重，幸蒙太守免監治疾，淵賂守者，賊殺掩迹，乞論淵罪，以洩婦冤。” 이항복, <유연전>, 위의 책, p.502)

리된 다음 부분에 백씨의 간특한 성품을 알 수 있는 삽화가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진짜 유유가 나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다가 주위의 시선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나는 것이나 채응규의 아들을 양자로 입양했다가 10년이 지난 후 정백이 유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자 관가에 발고하는 장면이 그것이다.⁴²⁾ 조정에서는 정백(貞白)이 유유의 아들 행세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발고한 백씨를 오히려 무색케 하였다. 이 삽화는 사건의 전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백씨의 성격을 드러내준다. 그러나 백씨의 인물됨이 작품의 전면에 부각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언급된다는 것은 이항복이 백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사건의 주모자로 형상화할 의도는 없었음을 말한다.

(3) 이지의 형상화

달성령(達城令) 이지는 세종(世宗)의 현손(玄孫)이다. 세종은 8대군(大君), 10군(君)을 두었는데 이 가운데 칠군(七君)인 익현군(翼峴君) 곤(璦)의 증손이기 때문이다.⁴³⁾ 이지는 1540년 유예원(柳禮源)의 장녀를 맞아들였으나 4년 후에 사별했다.⁴⁴⁾ 그는 유유·유연과 처남 매부 사이인데, <유연전>에서 모든 사건을 꾸미는 악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유연옥사는 가출했던 유유가 재등장하는 데서 시작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지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그는 유유를 찾아냈다면 유연에게 두 차례 편지를 보내고, 대가로 데려갈 것을 증용한다. 채응규에게 유씨 일가의 세세한 일들을 주지시켜 유유 행세를 하도록 하고, 일이 탄로나자 그를 도망시킨 것도 이

42) 先是, 游方在獄, 朝議有言, 白氏不宜在鄉, 越視其獄, 白氏聞而入京, 及游出獄, 直往白氏寓, 立而咳曰, “汝前以蔡奴爲我, 而賊吾弟, 異日, 勿謂今日我爲非游也.” 言訖, 拂衣去, 不顧, 白氏曰, “是夫也, 舊嘗加我以不測之言, 今又有是說耶?” 游謫龍岡, 期滿歸大丘, 二年死. 時, 白氏尙無恙在, 游終始不與交私訊, 白氏所取養春守之子貞白, 從應珪往大丘者, 在白家已十年, 及游獄起, 白氏縛以告官云, “今聞眞柳游出, 蔡應珪自裁, 請鞠貞白.” 朝廷置不問. 이항복, <유연전>, 위의 책, pp.517~518.

43) 조선왕조사편찬위원회 편, <준원·선원 세계표>, 『瑤源寶鑑』I 瀟源·瑤源篇, 계명사, 1989. p.640.; 전주이씨익현군파종회 편, 앞의 책, p.2.

44) 先人於嘉靖庚子冬, 娶于大丘居縣監柳禮源. 翌年春, 逆以來京, 越四年, 癸卯, 柳氏棄世. 권득기, <이생송원록>, 앞의 책, p.62.

지였다.⁴⁵⁾ 또 갑자년(1564년)의 옥사가 일어나자, 처음에는 유연과 의견을 같이했던 김백천을 협박하여 자신과 말을 맞추어 위증하도록 사주하고, 위관(委官)이었던 심통원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부탁한다. 이처럼 이지는 모든 사건을 계획하고, 배후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사건을 진행시키는 인물로 그려진다. 따라서 <유연전>을 읽는 독자들은 이지를 유연옥사의 주범으로 단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지가 자신의 처남인 유연을 사지에 몰아넣으면서까지 이 일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 작품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이원용도 자신의 아버지인 이지가 유연옥사를 벌일 만한 직접적인 동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연과 춘수의 공초를 통해 그 내막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꼭 옥사를 일으키려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지는 저의 아버가 제게 따로 좋은 말을 주었다 하여 아버가 저를 총애하는 것을 시기하였습니다.⁴⁶⁾ 이야기하는 중간에 간혹 말하기를, “하천변의 보리밭을 유연히 감히 혼자 갖겠다고?” 하고, 또 “내 처가의 재산을 유연이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나?” 하였습니다.⁴⁷⁾

창녕현감(昌寧縣監)이었던 유예원은⁴⁸⁾ 종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아 문벌이나 재산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첫째 아들 치(治)는 일찍

45) 서울에 가니 달성령 부자가 과연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묻고 물건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응규가 삼이와 백씨 집안의 노비, 달성령 부자 등이 말한 것을 암기하였는데, 백씨 집안과 유씨 집안 일이 매우 자세했습니다. 옷 소매에 넣어 두고, 때로 꺼내어 보았습니다. 달성령이 또한 은밀히 말하기를, “자네가 유유라 하고, 내가 또한 유유라고 하면 누가 알아볼 수 있겠는가? 만일 백씨가 의심한다면 도망가면 되네.” 하였습니다(至京, 則達城令父子果數來, 問遺不絕. 應珪因暗記三伊與白氏家奴與達城令父子等所言, 凡白家本家一門之事, 甚悉. 折蔽衣領, 時或開見. 達城令亦潛謂曰, ‘汝自謂游, 我亦曰游也, 誰能辨之? 萬一白氏見疑, 便可逃去.’ 이항복, <유연전>, 앞의 책, p.514).

46) 必欲成獄者, 亦厥有由. 蓋視以臣父別給良田, 忌臣枯寵. 이항복, <유연전>, 위의 책, p.506.

47) 談間或言, ‘河邊麥田, 淵敢獨占耶?’ 又曰, ‘吾妻家產, 淵獨專擅, 可乎?’ 이항복, <유연전>, 위의 책, p.514.

48) 『명종실록』 10년 4월 丁卯條.

세상을 떠났고, 둘째 유(遊)는 부자간의 불화로 인해 가출한 상태였으므로 유연에게 특별히 좋은 땅을 상속해주었다. 유연은 이 땅이 화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춘수의 공초에서 다시 확인된다. 여기에 대해 이언용은 별급문권(別給文券)을 작성할 때 이지가 증인으로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그 땅을 탐내지는 않았다고 항변하였다.⁴⁹⁾ 그러나 이지의 성행과 당시의 사회상,⁵⁰⁾ 위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유연옥사가 발생하는 데 땅 문제가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살핀 임해군, 순화군, 순녕군의 예에서 보이듯이 선조 말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이항복이 이지를 용의주도한 악인으로 형상화하여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은, 이지 한 개인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 아니라 당대 광범위하게 자행되던 궁가의 민가에 대한 재물 탈취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유연전>에서 이지는 궁가의 폐해를 드러내주는 상징적 존재이며, 유연은 그들로부터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받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항복은 이 점에서 이지를 부정적으로 형상화하는 한편 유연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4. 당대인의 <유연전> 수용태도

독자가 전 작품을 읽으면서 작자의 의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위치와 교유관계 등에 따라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날

49) 권득기, <이생송원록>, 앞의 책, p.70.

50) 척신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명종대에는 경제적 폐해가 심각했고, 특히 민전(民田)의 탈점(奪占)과 공사노비(公私奴婢)의 투탁(投託)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윤원형, 이량, 심전 등 척신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경제적 사익을 추구했는데, 일차적 생산수단인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매입 또는 개간, 심지어 일반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다(이재희, 「조선 명종대 척신정치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사론』 29, 서울대 국사학과, 1993, pp.108~110). 이러한 상황은 일반 사대부들에게도 드물지 않은 현상이었으며(『명종실록』 8년 5월 辛未條), 궁가에서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을 거점으로 입안하여 절수(折受)하는 일이 빈발하였다(『명종실록』 19년 8월 甲午條, 8월 乙未條).

수 있다. 여기서는 당대인들이 <유연전>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그 양상을 확인하려 한다. 이를 통해 유연옥사에 대한 시의(時議)가 어떠했는지를 대략이나마 알 수 있을 것이다.⁵¹⁾

1) 일반적인 의론

김시양(金時讓 : 1581~1643)은 <유연전>이 간행된 사실을 전하면서, 1608년에 이지의 둘째 아들인 이연관(李彦寬)이 가져온 <유연전후서(柳淵傳後叙)>의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않음을 낱낱이 지적했던 일을 적고 있다. 이어 이항복이 <후서>를 지어준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⁵²⁾ 이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글 몇 줄로 이미 드러난 죄악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⁵³⁾ 그는 <유연전>의 내용보다는 <후서>를 써준 이항복과, 이

51) 여기서는 <유연전>을 읽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만을 살피기로 한다. 이 외에도 권응인(16c초~임란전), 윤선각(1543~?), 이시발(1569~1626), 고상안(1553~1623) 등이 자신의 문건을 기록한 것이 있다(권응인, 앞의 책, p.282.; 尹先覺, 『聞韶漫錄』, 『국역 대동야승』 14, 민족문화추진회, 1973. pp.15~16. 李時發, <證記>, 『碧梧遺稿』 卷七, 『한국문집총간』 74, 민족문화추진회, 1991. p.503.; 高尚顔, <叢話>, 『泰村集』 卷四 「효빈잡기」 上, 『한국문집총간』 59, 민족문화추진회, 1990. pp.268~269). 권응인, 윤선각, 이시발의 기록은 형유에서의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고상안은 영흥군(永興君)의 일을 인용하여 유유의 처 백씨가 오랫동안 남편의 자리가 비어 있자 남자가 그리워 일을 꾸민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유연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보다는 유연과 같은 입장을 취하다가 유연에 부회(附會)했다는 오명을 썼던 서형(徐洞)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영흥군의 일은 『고려사』에 자세하다(『高麗史』 列傳 卷第四 宗室二, 『고려사』 下, 연세대 출판부, 1955. pp.53~54).

52) 戊申, 余訪許警甫, 視之子彦寬者, 袖二卷書, 以示之. 其日乃鰲城所撰柳淵傳後叙, 而其一則渠家所藏獄辭, 鰲城所取以爲叙者也. 寬也以父惡載於淵傳, 陰祈於鰲城, 稱其寬, 鰲城畏其報復, 有後言云. 麗之誅, 已三十年矣. 人皆快之. 萬口一辭, 非鰲城循情不定之筆所能掩也. …(중략)… 鰲城非無目, 而亦爲所欺. 何耶? 爲所欺耶? 抑爲所賣耶? 名之曰幽塵. 雖孝子慈孫, 不能改也, 鰲城數行後言, 安能使彦寬改達城之惡耶? 김시양, 『부계기문』, 『국역 대동야승』 17, 민족문화추진회, 1973. pp.538~539.

53) 김시양의 기록에 따르면, 이항복의 <후서>에 대해 임숙영이 그 잘못을 공박했다고 하였으나, 임숙영의 문집이나 이항복, 이원익, 홍흥 등의 문집에서 이와 관련된 기록은 찾지 못했다.

것을 가지고 이지의 죄악을 은폐하려 하는 이연관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는 동시대인으로서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의 목소리가 생생하며, 이지·이연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드러난다.

권필(權譯 : 1569~1612)은 <유연전>을 읽고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고 있다.

| | |
|---|---|
| 펼쳐 읽을 때마다 마음 상하니, 억울한 누명이 알려져 오랜 후에야 신원되었네. 재상들께 의지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지만, 세상에 불평한 사람이 어찌 없다 하겠는가. | 一回披讀一傷神, 冤屈從知久乃伸。 得附青雲真幸耳, 世間何限不平人。 ⁵⁴⁾ |
|---|---|

그는 이원익·이항복이 전을 지어줌으로써 유연의 억울한 누명이 풀리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잘못된 재판으로 여전히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되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익(李穡 : 1681~1763)은 <유연전>의 내용을 발췌하고, 여기에 이연관이 이지의 신원을 주장하다가 김시양에게 그 잘못을 지적당해 무안당한 일을 적고 있다. 이어 고려말 영흥군(永興君)의 일을 들어 옥안(獄案)을 살피는 판관들이 신중해야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⁵⁵⁾ 이익은 사실의 전달에 중점을 두되, 가장 후대의 기록인 만큼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

세 사람의 기술 내용은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일반론과 함께 이지를 유연옥사의 주범으로 자목하고 있던 당대인들의 공통된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30년이 지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지가 죽은 것을 시원하게 여긴다는 김시양의 말은 그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2) <이생송원록>에서의 수용태도

권득기(權得己 : 1570~1622)가 처음 <유연전후서>와 <송원(訟冤)>을⁵⁶⁾ 접

54) 권필, <題柳淵傳後>, 『石洲集』 卷七, 『한국문집총간』 75, 민족문화추진회, 1991. p.73.

55) 이익, <柳淵傳>, 『星湖僊說』 人事門, 『국역 성호사설』 V, 민족문화추진회, 1977. pp.31~32.

56) 이지의 셋째 아들인 이연용이 권득기에게 보여준 책은 '송원(訟冤)'이라 이름했

한 것은 1608년 9월로 추정된다. <이생송원록>은 1608년 3월부터 5월까지 금오랑(金吾郎)으로서 유영경(柳永慶)을 함경도 경흥의 유배지까지 호송했을 때의 일을 기록한 『북정일기(北征日記)』⁵⁷⁾ 바로 뒤에 실려 있고, 이어 <부여경상사술고서(附與慶上舍述古書)>와 <여박군성서(與朴君省書)>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1609년 가을에 쓰여진 <부여경상사술고서>에서 초상을 거둬서 치렀다[荐經喪厄]고 한 것은 1609년 1월에 상처(喪妻)하고 곧이어 둘째 아들 구(鳩)를 잃은 일을⁵⁸⁾ 말하므로 <이생송원록>은 1608년부터 1609년 사이에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생송원록>은 특별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언용이 권득기에게 아버지 이지가 유연옥사의 정범(正犯)으로 몰린 것은 억울하다며 들려주는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권득기가 자신의 의견을 몇 마디 덧붙이고 있을 뿐이다. 이언용의 말은 <송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564년 추국 때의 사건 관련자들의 공초 내용, 사건을 담당한 낭관(郎官)들의 회유에 따라 춘수가 애꿎은 이지를 지목해서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것, 일을 꾸민 것은 채응규와 백씨라는 것, <유연전>은 잘못된 곳이 너무 많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생송원록>은 그 자체에 상당한 모순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라고 하면서도 이지에게 유리한 증언만을 취하여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연의 표형(表兄)인 이자첨의 공초내용 대로라면, 처음 채응규를 만났던 것은 이자첨이 된다. 이에 따라 이지가 채응규를 끌어 들여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유연전>과 여타 기록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언용이 제시한 1564년의 공초 내용은 모두가 유연이 유유를 죽였다는 증언 일색이며, 그 내용대로라면 유연은 천하에 들도 없는 패물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므로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자료라

던 것으로 보이며, <이생송원록>은 이 책과 <유연전후서>를 전해받고 이언용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57) 권득기, <北征日記>, 『晩梅集』附錄, 앞의 책, pp.52~62.

58) <가장>에 따르면, 부인 전주 이씨는 1609년 1월 사망하였고, 둘째 아들은 모친 상에 과도하게 슬퍼하다 병을 얻어 17세로 요절했다고 한다. 권적 撰, <家狀>, 권득기, 『晩梅集』附錄, 앞의 책, pp.120~126.

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언용이 이를 근거로 이지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진짜 유유가 나타났던 1680년에 이자점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으므로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 채응규와 백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는 이항복이 유연의 공초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의 공초 내용을 전혀 채택하지 않은 것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언용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낭관들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기술하는 등 온갖 억측을 동원하여 이지가 여론재판의 희생양인 것처럼 기술하고, <유연전>에 열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가운데 이지가 이런 일을 벌인다 해도 큰 이익이 없다는 점, 대구에 있는 채응규에게 도망갈 것을 지시하는 것은 시간이나 거리로 보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유연이 이씨에게 보낸 편지는 사건이 전개되기 전에 그 방향을 예단하고 있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다섯 가지는 그 자체에 선후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이지에게 유리하게 의도적으로 엮어나간 흔적이 농후할 뿐 아니라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이다.

이언관·이언용 형제가 <송원>과 <유연전후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접촉한 것은 이지를 유연옥사의 정범으로 지목한 세간의 여론을 바꾸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비단 <유연전>이 지어진 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1580년 이지가 죽은 이후 지속적으로 행해졌다.⁵⁹⁾ 유연이 법적으로는 신원되었다고 하지만 유연의 처 이씨로서는 이언용 형제에 의해 계속적으로 문제가 회석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씨가 이들에게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라 당대의 명망가인 이원익에게 그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로 이항복에 의해 <유연전>이 지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연전>이 세상에 간행되어 세상에 널리 퍼지자 이언용 형제에게 세간의 여론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고, 이에 따라 해명 자료를 가지고 신원운동에 나선 것이다.

59) 余兄弟呈訴本府, 或呈法司, 至於筵官出入之際, 朝廷大會之處, 無不號哭奔訴. 권득기, <이생송원록>, 앞의 책, p.68.

한 것은 1608년 9월로 추정된다. <이생송원록>은 1608년 3월부터 5월까지 금오랑(金吾郎)으로서 유영경(柳永慶)을 함경도 경흥의 유배지까지 호송했을 때의 일을 기록한 『북정일기(北征日記)』⁵⁷⁾ 바로 뒤에 실려 있고, 이어 <부여경상사술고서(附典慶上舍述古書)>와 <여박군성서(與朴君省書)>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1609년 가을에 쓰여진 <부여경상사술고서>에서 초상을 거듭해서 치렀다[荐經喪厄]고 한 것은 1609년 1월에 상처(喪處)하고 곧이어 둘째 아들 구(鳩)를 잃은 일일⁵⁸⁾ 말하므로 <이생송원록>은 1608년부터 1609년 사이에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생송원록>은 특별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언용이 권득기에게 아버지 이지(李之)가 유연옥사의 정범(正犯)으로 몰린 것은 억울하다며 들려주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권득기가 자신의 의견을 몇 마디 덧붙이고 있을 뿐이다. 이언용의 말은 <송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564년 추국 때의 사건 관련자들의 공초 내용, 사건을 담당한 낭관(郎官)들의 회유에 따라 춘수가 애꿎은 이지를 지목해서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것, 일을 꾸민 것은 채응규와 백씨라는 것, <유연전>은 잘못된 곳이 너무 많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생송원록>은 그 자체에 상당한 모순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라고 하면서도 이지에게 유리한 증언만을 취하여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연의 표형(表兄)인 이자침의 공초내용 대로라면, 처음 채응규를 만났던 것은 이자침이 된다. 이에 따라 이지가 채응규를 끌어 들여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유연전>과 여타 기록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언용이 제시한 1564년의 공초 내용은 모두가 유연이 유유를 죽였다는 증언 일색이며, 그 내용대로라면 유연은 천하에 둘도 없는 패륜아라고 할 만하다. 그러므로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자료라

던 것으로 보이며, <이생송원록>은 이 책과 <유연전후서>를 전해받고 이언용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57) 권득기, <北征日記>, 『晚梅集』附錄, 앞의 책, pp.52~62.

58) <가장>에 따르면, 부인 전주 이씨는 1609년 1월 사망하였고, 둘째 아들은 모친 상에 파도하듯 슬퍼하다 병을 얻어 17세로 요절했다고 한다. 권적撰, <家狀>, 권득기, 『晚梅集』附錄, 앞의 책, pp.120~126.

치 않았으며, 이지를 변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집안에 상사(喪事)가 거듭되자 이러한 태도에 변화가 생긴다. ②가 이 같은 사정을 잘 보여준다. 처음에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서 글을 지어주었던 것이 은연 중 드러나고 있지만, 우환이 거듭되자 그 원인이 잘못된 일, 즉 이지를 옹호하는 글을 지어준 데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게 된다. 자식을 잃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의 확신에 찬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여박군성서>는 1610년 가을에 쓴 편지인데,⁶³⁾ 이 때의 심정은 ③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권득기는 이지가 최소한 유연이 죽음에 이르도록 방조한 혐의는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추측에 불과하다는 듯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 때는 불과 1년여 사이에 모친과 부인, 자식을 잃었으므로 ②에서 품은 의구심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이며, 이전의 태도를 생각한다면 단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권득기의 태도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지를 변호하는 글을 써준 그가 이렇게 태도의 변화를 보일 정도였다면, 이지에 대한 당대인들의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항복이 이지를 작품에서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그 죽음마저도 요행이라 한 것은 당시 세간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유연전>의 입전의도를 관련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작품에 구현되었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확인하였다.

이항복이 <유연전>을 지은 것은 유연이 죄없이 오명을 쓰고 죽은 데 대하

63) 권득기는 1610년 6월에 모친상을, 1613년 봄에는 부친상을 당했는데, 편지의 첫 부분에 가을이 깊어간다[秋日漸靡]고 하고, 이어卒哭을 지냈다[已過卒哭]고 한 것으로 보아 모친상을 당한[罹大故] 후에 쓴 것으로 보인다. 권득기, 위의 글, p.72.

여 깊은 연민을 느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생각과 잘못된 판결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관원들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힘없는 백성들이 권력과 제도의 폭력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사회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작품에서 유연이 무력하고 수동적인 역할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나, 이지가 철저한 악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작자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에 형상화된 유연과 이지의 모습은 한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권력과 제도의 비호를 받는 악한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이항복의 입전의도는 당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일반적인 의론은 유연과 이지라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개인적 문제로 수렴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원용 형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누구도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이지로 대표되는 궁가에 대한 사대부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연전후서>의 내용마저도 강요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생송원록>을 써주어 이지를 옹호했던 권득기마저 그들에게 등을 돌린 것은 개인적 불행 때문만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당대 사대부들이 <유연전>을 수용한 태도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항복과 이원익이 이원용 형제의 요구에 따라 <유연전후서>를 써주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후서>의 내용은 <유연전> 말미에 제시된 이항복의 입전의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연관이 가지고 다녔던 <후서>라는 것은 김시양과 같은 사람에게 그 오류가 지적되었으며, 그 때마다 조금씩 수정했던 것으로 보아 이지가(李穡家)의 <가승>을 바탕으로 <유연전>에 잘못 기술된 몇몇 부분에 대한 해명을 첨부해준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이원용 형제가 <유연전>을 문제삼은 것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지를 악인으로 형상화하여 이를 통해 당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자 했던 이항복의 입전의도가 작품에 관철되어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characterizing intention and the receiving attitude of *Yooyeonjeon* through the related documents.

Song, Ha-joon

In this thesis, I investigated the characterizing intention of *Yooyeonjeon* through the related documents, and confirmed the embodying aspects and the readers' attitude.

Lee Hang-bok, felt the deep pity for *Yoo-yeon*'s mortified death without a crime, wrote *Yooyeonjeon* in the purpose of dispelling his innocence and correcting the dispersed official discipline. It notify the critical mind on the contemporary society that the powerless people are suppressed by the violence of the power and the system. It described *Yoo-yeon* as a spiritless and passive person, and *Lee Ji* as an unmitigated villain. It is based on the critical mind of writer. So the shape of *Yoo-yeon* and *Lee Ji* is containing the social meaning of the social weakness and the an protected villain by the power.

Although the characterizing intention of *Lee Hang-bok* started from the recognition on the contemporary social problem, the general arguments are seems to be extorted on the individual problem between an assaulter and a sufferer. Despite of *Lee Won-yong* brother's continuous efforts, no one listen attentively to this. It is caused by the negative recognition of the dignitary on *Gungga*, represented by *Lee Ji*. The attitude on the contents of *Yooyeonhuseo* that it was demanded could be understood on this logical connection. Specially, the outward appearance of *Kwon Ki-duk*'s who wrote *Leesaengsongwonrok* and vindicated *Lee Ji* is the general

attitude of dignitary on rather <Yooyeonjeon> than the individual Misfortunes.

It is clear that *Lee Hang-bok* wrote <Yooyeonjeonhuseo> by the request of *Lee Won-yong* brother. Then we have to def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ents of <Yooyeonjeonhuseo> and the characterizing intention of <Yooyeonjeon>, are also worted by *Lee Hang-bok*. Actually it is difficult to confirm. But *Kim Si-yang* mentioned about the mistakes of *Lee Eon-kwan's* <Yooyeonjeonhuseo>, it was gradually revised. It just appended the some explanations on the mistakes, base on *Lee Si-ga's* <Kaseung>. If consider *Lee Won-yong* brother's taking notice of <Yooyeonjeon> from the opposite point of view, we could notify that the characterizing intention of *Lee Hang-bok*-describing *Lee Ji* as an unmitigated villain and exposing the critical mind on the contemporary society- is realized on the <Yooyeonjeon>, met the strong resistance.